

연구 자료

## 농업경제학에서 거래비용경제학의 유용성\*

권 오 복\*\*

Key words: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 거래빈도(Frequency of Transaction), 농업경제학(Agricultural Economics)

### Abstract

Various types of agricultur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have appeared due to severe competition in agricultural markets and changes in consumers' preference for food. Production and marketing contracts, producers' organizations, and collective sales by producers may be good examples. The basic role of agricultural economics is to explain how such things works. In this context, a brief structure of the 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 is reviewed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TCE to agricultural economic research is suggested.

Although there are some empirical research limitations, the paper argues, TCE would be a good tool for analyzing agricultural contract,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producers' organizations, vertical integration, standardization and grading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business.

- |                  |                          |
|------------------|--------------------------|
| 1. 머리말           | 3. 농업경제학에 거래비용경제학의 적용가능성 |
| 2. 거래비용경제학의 이론 틀 | 4. 맺음말                   |

### 1. 머리말

응용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농업경제학은 다른 학문분과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농업, 농촌사회를 둘러싼 일련의 현상들이 어떻게 작동되는가(how things work)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

\* 본고는 한국농업경제학회 2004년하계학회(2004. 7.8-9)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부연구위원

구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부터 적합한 연구방법론과 이론적인 틀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하고, 연구 대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것들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의 심화, 소비자의 욕구변화 등 우리나라 농업·농촌·농업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업관련 조직 또는 제도가 출현한다. 생산자-유통업자, 생산자-가공업자간의 생산 또는 유통계약, 영농조합 등의 농민조직, 농산물의 공동판매 등이 그 예인데 이들의 발생배경, 운영,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은 신고전학과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NCE)에 의해 지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NCE는 경우에 따라서 모델을 통한 현상의 과단순화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실증적인 연구방법론을 제공하면서 분권화된 시장에서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고 교환되는지, 개인이 직면하는 제약 조건이 변할 때 경제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 등 인간의 경제행위를 이해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Eggertsson, 1990).<sup>1</sup> 그렇다고 NCE가 모든 경제 현상을 만족스럽게 설명한다고 평가내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예를 들면 NCE가 기반으로 하는 “마찰 없는 세계”(frictionless world)와 같은 가정 속에서 나온 분석결과들이 경제현

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 가이다. 어떠한 거래든지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과 경제 주체들의 제한된 정보획득·분석 능력 등에 따라 거래비용, 즉 마찰을 수반한다.<sup>2</sup>

요즈음 농촌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농산물의 공동출하가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유통비용절감 등과 같은 NCE의 관점<sup>3</sup>에서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공동출하를 둘러싸고 생산자 상호 간 기회주의적 속성(opportunism)은 없는 것인가? 품목별, 지역별 거래특성은 무엇인가? 생산자와 구매자간 발생하는 자산특수성(asset-specificity)은 무엇인지? 이것들이 거래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NCE만으로 충분한 설명을 구하기 어렵다. 농업경제행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NCE

<sup>2</sup> Eggertsson(1994)은 최근에 들어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간과한 분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든다. 1) 소유권과 같은 사회조직과 경제조직이 경제행위, 자원분배, 균형점 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기업이 갖는 경제적인 논리는 무엇인지, 3) 생산과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인 규약들 속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논리는 무엇인가? De Alessi(1983)도 신고전학과 경제이론이 1) 거래 및 적응비용이 제로이고, 2) 모든 자원이 완전 배분되고, 3) 자원의 소유자는 금전적인 유인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가장 생산적인 곳에 배분하고, 4) 소득과 여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선택은 소득수준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태만 가능성은 없다는 등의 지나친 가정에 의해 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 중 하나만이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sup>3</sup> 허길행 등(2002)은 공동출하의 경제적 효과로서 첫째, 교섭력 증대,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둘째, 규모의 경제 실현, 유통시설 공동 이용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sup>1</sup> 더구나 오늘날 경제학은 경제 모델의 정교화, 일반균형모델의 발전, 불확실성과 정보경제학, 컴퓨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등으로 인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Nicholson, 1995).

이외에 다른 분석도구가 요구된다.

본고는 TCE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보완으로서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TCE)을 소개하고 농업경제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장에서는 TCE의 이론적인 틀을 간단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농업경제학 분야에서 TCE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4장에서 맺음말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Institutional Economics: NIE)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Williamson(2000)이 제시한 사회분석의 네 가지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림 1>은 각 수준별 경제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들과 변화주기, 그리고 경제행위의 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상위수준에서 하위수준으로의 화살표는 상위수준의 규제들이 하위수준의 경제행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위수준에서 상위수준으로 향한 화살표는 하위수준에서 상위수준으로의 피드백을 나타낸다.

첫 번째 수준은 규범, 관습, 전통, 종교 등 비공식적인 규율들이 경제행위를 지배하는 차원으로서 대개의 경우 이 수준은 경제사학자나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자의 연구 몫이다. NIE에서는 이 수준의 것들은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수준은 제도적 환경에 관한 부분으로서 헌법, 법

## 2. 거래비용경제학의 이론 틀

### 2.1. 신제도경제학의 한 갈래로서 거래비용 경제학

#### 2.1.1. 사회분석의 네 가지 수준

TCE의 상위분야로서 신제도경제학(New

그림 1 사회분석의 4가지 수준

수준별	규제 수단	변화빈도 (학문분야)	경제활동목적
1	사회에 내재된 규율: 비공식적 제도, 관습, 전통, 규범, 종교 등	100~1,000년 (사회이론)	구체성 모호
2	제도적 환경: 공식적인 게임규칙(정당, 법원, 관료)	10~100년 (소유권경제학, 실증정치이론)	올바른 제도 환경 정립: 1차 적정화
3	규칙: 게임의 진행 (규제구조별로 거래를 배열하는 계약)	1~10년 (거래비용경제학)	올바른 규제구조 확립: 2차 적정화
4	자원배분 및 고용 (가격 및 물량, 인센티브 배열)	계속적 (신고전학파경제학/고객이론)	한계조건의 적정화: 3차 적정화

자료: Williamson(2000).

를, 소유권과 같은 공식적인 규제 장치가 작동되는 단계이다. 이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문은 소유권경제학(Property Right Economics)이다. 세 번째 수준은 게임의 진행, 즉 계약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다루는 단계이다. 경제 주체간 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거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제 장치가 분석의 초점이다. 두 번째 수준과 세 번째 수준이 TCE의 주된 연구영역에 해당한다. 마지막 네 번째 수준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주로 연구하는 영역으로서 이 수준에서는 가격 및 물량이 수시로 변하고 기업은 단순히 생산함수로 표현된다. 이때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하여 고객이론(Agency Theory)도 거래된 인센티브의 배열과 함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 2.1.2. 신제도경제학의 대두

NIE는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기업조직, 법률학 등의 연구 대상을 포괄하는 다학문적이면서 광범위한 학문분과이다. NIE란 용어는 TCE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Williamson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Coase(1937)의 기업의 성격(The Nature of the Firm)이 발표된 193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었다(Kherallah and Kirsten, 2001). Coase(1937, 1960)는 각종 제도적 장치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비용이 경제활동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는 제도가 결국 경제성과를 규정짓는다고 보고 경제학에서 NI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Coase 이전에도 구제도경제학(Old

Institutional Economics)이 존재하였지만 Williamson(1985)에 의하면 이 학파는 제도가 단지 경제행위를 설명하고 규정짓는데 중요하다고 보았을 뿐, 그들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과 거의 무관하게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론적인 바탕이나 실증적인 절차에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Coase의 NIE와는 구별된다.

NIE의 주된 연구대상은 제도(institution)에 두고 있다. 즉 NIE에서는 제도의 결정요인과 시간에 따른 변천을 설명하고, 제도가 경제성과, 효율,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Nabi and Nugent, 1989). 물론 여기에서의 제도는 경제주체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계약, 정치체계, 조직, 시장 등 공식적인 제도는 물론 규범, 전통, 관습, 가치체계, 종교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2.1.3. NIE의 갈래

NIE가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각 학문 분야별로 이용되는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NIE의 갈래를 구분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않다. 여기에서는 Olson and Kähkönen(2000)이 NIE를 분류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NIE안에 어떤 학문분과가 있으며, TCE는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로 한다.

Olson and Kähkönen(2000)은 오늘날의 경제학을 대도시와, 사방(정치학, 법학, 사회학 등)으로 빠르게 뻗어나는 소도시로 비유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는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여

집단선택(또는 실증정치이론)을 개발하였다. 경제학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분야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과 방법론은 사회학, 인구학 등에서도 발견된다. 반면에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인 연구대상인 가격, 물량, 변동 이외에도 사회의 규제장치와 분쟁해결 장치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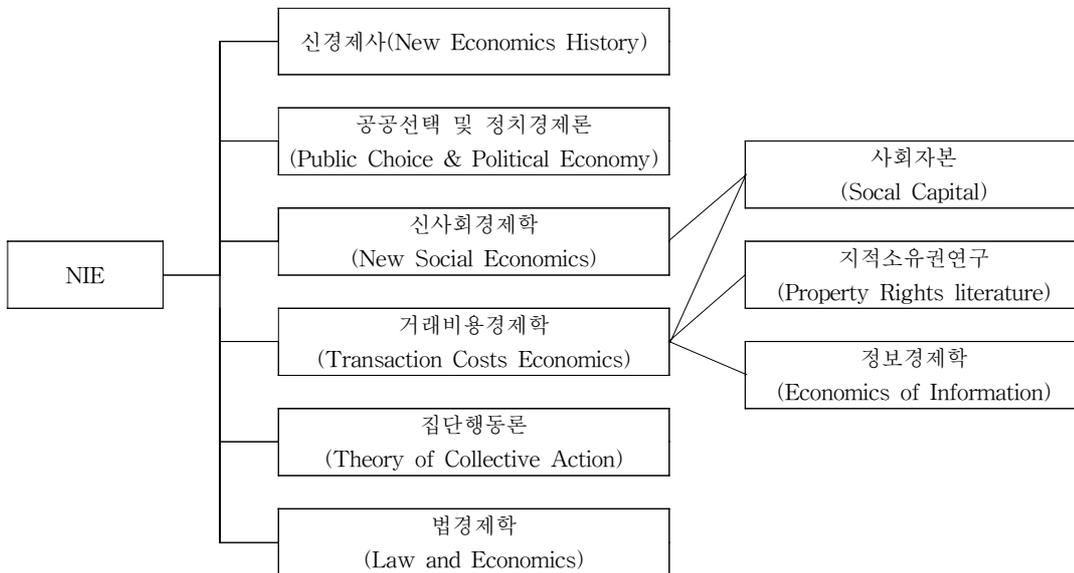
경제학적인 사고방식과 방법론이 다른 학문분과로 확장됨에 따라 NIE는 여러 가지 분과를 포함하는 다학문적 또는 복합적인 학문으로 규정된다. <그림 2>는 NIE의 갈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IE는 신경제사, 공공선택 및 정치경제론, 신사회경제학, 거래비용경제학, 집단행동론, 법경제학 등 여섯 갈래로 나뉜다. 이밖에도 TCE와 연관을 지니는 사회

자본, 소유권연구, 정보경제학 등이 있다.

신경제사학에서는 경제가 어떻게 진보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관심을 보이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제도의 역할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 학과에 속하는 학자들은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안, 발전된 각국의 제도들은, 즉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기반장치들은 경제성과에 핵심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기술과 정보비용이 변함에 따라 제도와 상대가격이 변한다는 것이다.

공공선택 및 정치경제학에서는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 의하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농민단체는 서로 산재해 있고 이질적이어서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공업 또는 도시 부문에 비해 취약하

그림 2 NIE의 갈래



자료: Olson and Kähkönen(2000).

다는 것이다.

신사회경제학과 학자들은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다루지 않았던 선택의 문제에 착안하였다. 이 학과에서 중요시 되는 개념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에서 협동을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대, 유대, 규범, 신념을 의미한다. 이들은 경제행위와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고리와 네트워크를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집단행위론에서는 이익집단내 무임승차 문제 및 수자원, 토지, 어족자원 등 공동자원의 관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해결된다고 보았지만, 집단행위론에서는 관습 및 사회적 습관 등과 같은 지역의 제도적 장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경제학에서는 법률체계에서 행위자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로 인식되어 법률행위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개인의 법률행위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 있다는 것이다.

Sykuta and Cook(2001)은 NIE이론으로서 고객이론, 소유권, 불완전 협상, 거래비용경제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거래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가 거래속성, 감시 및 이행비용, 교섭상대와의 관계, 교섭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TCE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학자<sup>4</sup>로 인정받는

Williamson(1985)은 명백하게 TCE는 NIC의 한 분과(part of the NIE)라고 밝히고, TCE와 NIE는 주로 경제조직과, 기업, 시장, 거래 등과 같은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NIE 또는 TCE가 농업경제학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NIE의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NIE에 속하는 학문분과 중에서 거래비용경제학, 소유권 경제학, 고객이론 등이 경제학과 좀 더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학문분과라고 여겨진다.

## 2.2. 거래비용경제학의 이론구조

### 2.2.1. 거래비용의 개념

거래비용은 개인간 경제체에 대한 소유권을 교환하고 그러한 소유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 발생한다(Eggertsson, 1994). Kenneth Arrow(1969)는 거래비용을 “경제체계를 운영하는 비용”(cost of running the economic system)이라고 정의하였다. Furubotn and Richter(2000)은 거래비용이 경제체제의 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체제의 기본적인 제도 골격을 설립, 유지, 변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Matthews(1986)는 거래비용이 거

을 저술한 Coase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Dietrich, 1994). Coase 이후 Williamson까지 TCE의 토대를 이룬 여러 가지 학문적 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etrich(1994: 19-20)의 저서를 참조할 것.

<sup>4</sup> 엄밀한 의미에서 TCE의 창시자는 1937년에 기업의 성격(The Nature of Firm)이라는 논문

래진 발생하는 거래 성사(arranging a contract) 비용과 그러한 거래를 사후감독하고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사후적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와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North(1998)는 전체 생산비는 기존의 생산비에 거래비용을 합한 개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총생산비는 상품의 물적 특성(크기, 무게, 색깔, 위치, 화학적 구성 등등)을 전환하는데 소요된 전환비용과, 소유권을 규정하고, 보호하며, 이행하는데 소요된 거래비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거래비용도 경제학에서 다른 비용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기회비용개념이다. 또한 거래비용은 가변거래비용(variable transaction costs)과 고정거래비용(fixed transaction cos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인 거래비용의 유형으로는 (1)거래 대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 잠재적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물색과 그들의 태도에 관한 정보 획득 비용, (2)가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실제 가격조건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교섭비용, (3)거래를 성사시키는 비용 등이다. 사후적인 거래비용으로는 (1)계약당사자의 계약 준수 여부 감시 비용, (2)계약불이행시 계약의 이행 및 손해사정 비용, (3)제3자로부터 소유권의 보호 비용 등이 포함된다.

Furubotn and Richter(2000)은 시장거래비용, 경영거래비용, 정치적 거래비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거래비용을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거래비용 유형은 시장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시장거래비용(market transaction costs)으로서 (1)거래 상대자 또는 대상에 대한 탐색 및 정보비용, (2)거래성사를 위한 거래상대와의 교섭 및 의사결정비용, (3)계약의 이행여부 감독 및 이행비용 등이다.

두 번째는 기업내에서 지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경영거래비용(Managerial Transaction Costs)이다. 이는 개인경영, 정보기술투자, 기업경영권 보호, 대중관계, 로비 비용 등 조직을 설립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거래량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고정비용인 경우가 많다.

경영거래비용의 또 다른 형태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달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감독, 종업원들의 업무수행, 정보관리비용 등과 같은 정보비용과, 기업내 중간재 운반에 따르는 시간낭비 등과 같은 재화 및 서비스의 물리적 이동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거래량에 비례하는 가변비용이다. 세 번째 정치적 거래비용에는 법률제정, 관리체제, 군사, 교육 등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치조직의 설립·유지비용과 그밖에 정권 유지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로 Williamson(1985)은 (1)제한적 합리주의(bounded rationality), (2)기회주의(opportunism), (3)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를 들고 있다. North(1998)는 거래대상 재

화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측정(measurement) 비용과 거래의 이행비용이 거래비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Saleh(2004)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높은 비용이 수반되고, 인간의 기회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2.2.2. 거래비용경제학의 이론적 구조

오늘날 미시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는 주요 가정은 재화간 소비자 선호의 이전성(transitivity) 등 소비의 안정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균형의 안정성 등이다. Lakatos(1970)는 이러한 가정을 미시경제학의 핵심(hard core)이라고 불렀다. 미시경제학의 핵심을 둘러싼 보호막(protective belt)으로 비유되는 주요 가정들로는 경제주체가 직면하는 제약조건, 경제주체가 보유한 정보의 유형, 상호작용의 유형에 관한 가정들이다(Knudsen, 1986).

제도경제학의 또 다른 갈래인 Neoinstitutional Economics (NIE)에서는 미시경제이론의 핵심가정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되, 보호막만 현실에 맞게 약간 수정하였다(Eggertsson, 1994). 예를 들면 거래를 규정짓는 규칙과 계약의 제약을 모델화하려고 하고, 완전한 정보가정과 거래비용의 제로 가정을 완화시켜 거래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가치 있는 상품이 오직 가격 및 양이라는 2차원적 속성을 지닌다는 가정을 완화하고, 재화와 서비스가 지니는 질적인 속성이 경제행위 결과와 경제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NIE에서는 효용 또는 이윤으로 표현되

는 목적함수 최적화(optimization) 가정을 부정하는 대신, 경제주체들의 제한적인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초하여 개인들은 만족을 얻는 전략을 채택한다고 가정한다(Williamson, 1985). 이때 제한적 합리성은 경제주체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TCE는 계약에 참여하는 개별 경제주체가 미래의 모든 가능한 상황과 결과를 인식하여 완전한 사전적인 계약을 맺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따라서 기존의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목적환경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개인의 행위가 추론되었지만, 만족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정신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CE에서 상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행위적 가정은 거래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모두 기회주의(opportunism)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는 이타적이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주의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의미이다(self interest seeking with guile).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정보의 비대칭적인 분포로 인해 도덕적 해이, 역선택, 사기 등과 같은 전략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NIE에서는 경제 주체의 제한적 합리성과 기회주의적인 속성으로 인해 어떤 거래든 거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경제조직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가령 기업을 조직하여 여러 가지 업무 조정과 기업

내 질서유지를 위한 거래비용과, 시장에서의 계약에서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크기에 따라 어느 한 형태의 거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조직은 거래속성과 그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에 따라 생겨난 합리적인 제도의 하나라는 것이 NIE의 관점이다.

이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양식 가정은 TCE의 한 갈래로 인식되는 고객이론(Theory of agency)에서도 핵심 개념이다(Eggertsson, 1994). 주인과 고객간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고 고객의 과업수행 정도를 감독하는 비용 등이 제로가 아니면, 고객은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주인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경제조직을 다루는 NIE의 다른 학문분과에 비해 TCE는 ㄱ) 좀 더 미시 분석적이고, ㄴ) 경제주체의 행위가정에서 스스로의 의식을 좀 더 강조하며, ㄷ) 자산특수성의 경제적 중요성을 도입, 발전시켰다. 이에 더하여 TCE는 ㄹ) 기업을 하나의 생산함수라 보기보다는 (거래를 규정짓는) 규제구조라 보며, ㄴ) 법원에서의 해결보다는 민간적인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사후적인 제도에 무게를 둔다(Williamson, 1985). 또한 TCE에서 견지하는 주요 입장으로는 ㄱ) 거래가 가장 기본적인 분석단위를 이루면서, ㄴ) 거래비용은 규제장치의 선택여하에 따라 적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Williamson, 1985).

### 2.2.3. 거래의 속성

TCE를 확립시킨 Williamson은 거래속성에 따라 거래유형과 제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즉 거래가 지니는 속성은 위의 행위가정과 함께 TCE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Williamson(1985)이 제시한 거래 속성에는 ㄱ) 자산특수성, ㄴ) 불확실성, ㄷ) 거래빈도 등 세 가지이다.

#### 가. 자산특수성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산이 현재의 용도에서 타 용도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자산특수성이 높을수록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특수성이 크면 클수록 다른 용도로의 쓰임새가 없거나 적은 매몰비용(sunk cost)<sup>5</sup>의 비중이 높다.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계약당사자들은 자산특수성이 있는 경우 준지대(quasi-rents)<sup>6</sup>를 놓고 갈등을 벌인다는 것이 TCE의 요지이다. 자산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 고객은 준지대를 모두 차지하기 위해 계약을 반복하는 등의 행동(holp-up)을 한다는 것이다.

Williamson(1989)은 자산특수성의 유형으로 ㄱ) 장소특수성(site specificity), ㄴ) 물적 자산특수성(physical asset specificity),

<sup>5</sup> 매몰비용이란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1회성 투자로서 일반적으로 특수용도를 지녔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을 떠나면 잔여가치가 제로가 된다. 생산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고정비용과 유사하지만 고정비용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지만 매몰비용은 단지 한번만 소요된다. 매몰비용의 예로 온실의 가온장치를 들 수 있다.

<sup>6</sup> 준지대(quasi-rents)란 현행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의 수입과 차선택의 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차액을 의미한다. 자산특수성이 클수록 차선택으로 인한 수입이 적어져 준지대가 커지게 된다.

표 1 거래속성별 거래형태

	불확실성			
		저	중	고
자산특수성	저	시장거래	시장거래	시장거래
	중	장기계약	장기계약/수직통합	장기계약/수직통합
	고	장기계약	장기계약/수직통합	장기계약/수직통합

자료: Williamson(1985).

(ㄷ)인적 자산특수성(human asset specificity), (ㄹ)헌납적 자산특수성(dedicated asset specificity), (ㅁ)시간적 특수성(temporal specificity) 등 다섯 가지<sup>7</sup>를 제시한 바 있다.

나. 불확실성

거래의 불확실성이란 계약후 결과의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낸다. 농업의 경우 가격의 불확실, 생산의 불확실성, 시장접근상 및 관계상의 불확실성 등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성과에 대한 확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 밖에도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지닌 거래당사자의 태도, 즉 계약 준수 여부 역시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거래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다. 거래빈도

거래빈도란 일정 기간 거래의 횟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거래빈도가 많을수록 그에 따른 거래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거래빈도가 많은 거래는 장기예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Williamson(1985)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거래속성에 따라 거래형태가 결정된다고 보고, 거래속성별 거래형태를 <표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자산특수성과 거래의 불확실성이 낮으면 시장거래를 이용하지만, 자산특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래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장기계약과 수직통합이 바람직한 거래형태라는 것이다.

<sup>7</sup> 여기에서 장소적 특수성은 일정 장소에 자리하면 옮기가 곤란하고 타용도로의 쓰임새가 적은 경우를 말하는데 자동차공장 주변의 제철소가 많이 인용되는 예이다. 물적 특수성은 특정 목적의 투자 또는 시설로서 축산농가의 오페수정화시설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인적자산 특수성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특정분야에 대한 인적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병아리 암수감별기술이 좋은 예일 것이다. 병아리 암수감별 기술은 해당 분야 이외에는 전혀 쓰임새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헌납적 자산 특수성은 특정거래당사자와 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로서 그 거래당사자와의 거래 이외에는 쓰임새가 별로 없는 경우이다. 시간적 특수성이란 특정 시간 내에 납품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이다(Masten 외, 1991).

3. 농업경제학에 거래비용경제학의 적용 가능성

지금까지 TCE의 이론적 구조, 주요 가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농업경제학에서 TCE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서론에서 밝힌 대로 농업경제학에서 TCE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수단으로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보는 것이다.

### 3.1. 거래경제학의 주요 연구대상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TCE에서는 ‘마찰’있는 경제 현상을 상정한다. 즉 거래 성사 전후에 거래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비용 유형별로 계량화하는 난점이 있기는 하지만 거래 형태별 거래비용 파악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기존 신고전학파가 소비자 또는 기업을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삼은 것에 비해 TCE에서는 분석단위를 거래에 한정시킴으로써 다차원적인 거래활동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거래비용이 경제조직 또는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기존의 신고전학에서는 경제조직 또는 제도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데 비해 TCE에서는 거래비용과 관련된 경제 조직 또는 제도를 분석한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경제조직 또는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이슈이다. 이는 산지에서의 여러 형태의 계약, 농민 조직 등을 설명하는데 TCE가 상대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보이는 부분이다.

역으로 거래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제도의 모색 또한 TCE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거래비용의 내부화(internalization)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TCE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로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Make” or “Buy” decision)말이

있다. 이는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재화를 공급자에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업을 조직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를 농업 부문에 적용한다면 유기농가가 기업을 조직하여 유기농 비료를 자체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TCE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TCE의 한 갈래인 고객이론(agency problem)에서는 거래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유인체계를 가지고 주인(principal)-고객(agent)관계<sup>8</sup>를 주로 다룬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숨겨진 정보(hidden informatio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있고,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으로 빚어지는 문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Sykuta and Cook, 2001). 여기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시정하는 데 양(陽)의 거래비용이 든다는 것이 전제이다. 이 때문에 거래에서 사전적인 탐색비용과 함께 사후적인 감독 및 이행비용이 소요된다. 해당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정보를 적게 가진 주인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효과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주어진 일을

<sup>8</sup> 주인-고객 관계의 한 예로서 농민과 위탁영농회사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농민은 주인에 해당하고 위탁영농회사는 고객인 셈인데, 위탁영농회사는 농작업에 관한 한 작업을 의뢰한 농민보다 더 잘 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감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농장에서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이다.

잘 수행해 내게 할 수 있는가가 관심사이다. 여기에서도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장치(governance mechanism)의 장구가 핵심문제로 부각된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발생하는 주인-고객 문제는 농산물의 선별 등 농업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역시 TCE의 한 분야로 인식되는 소유권이론<sup>9</sup>에서는 사회적 제도의 한 형태인 소유권이 자원활용과 경제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Saleh (2004)는 소유권이 투자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불확실한 소유권은 거래비용을 유발한다(De Alessi, 198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실할 때 토지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유인이 낮아진다는 이론도 소유권이론의 한 예이다.

### 3.2. 농업경제학에 거래경제학의 적용가능 분야 예시

#### 3.2.1. 농업계약

TCE의 첫 번째 적용가능 분야는 계약생산과 계약 마케팅 등의 농업계약이다.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수입개방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농업 부문에도 생산자-유통회사, 생산자-가공업자, 생산자-소비자 등 여러 형태의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가령 농민들이 품목

별 전문조합을 결성,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대형 유통점에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간 계약이 이루어진다. 축산의 경우 양계, 양돈 분야에서 계약 생산이 활발하다.

기본적으로 거래는 (1)거래를 통한 가치의 배분, (2) 위험의 배분, (3) 결정권의 배분 등 세 가지 요소를 지닌다(Sykuta and Parcell, 2002). 여기에 시간요소가 가미되면 거래의 불확실성이 중요하게 된다. 계약은 이러한 요소들을 규정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셈인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계약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완전한 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 계약의 불완전성(contractual incompleteness)이 존재하는 것이다. 계약이 불완전하고, 감시 및 이행비용이 제로가 아닌 이상 계약당사자간 기회주의적인 개연성은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계약을 기획하고 협상하는 사전적 거래비용의 제약조건 속에서 거래상대방의 사후적인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관심사이다. TCE는 농업계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sup>10</sup> 첫째 계약의 준비, 성사, 이행, 감독 등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계약의 구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TCE는 계약도 하나의 규제 장치 또는 제도

<sup>9</sup> 소유권과 관련하여 유명한 이론으로 코스정리(Coase theorem)가 있다(Coase, 1960). 코스에 의하면 소유권이 제대로(well) 확립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제로이면,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를 당사자간 교섭과 협상에 의해 내부화될 수 있다.

<sup>10</sup> 실제로 미국에서는 축산분야에서의 계약생산과 계약유통을 대상으로 TCE를 이용한 연구가 적지 않은데 Goodhue(2000), Johnson and Foster(1994) 등이 그 예임.

라고 볼 때 계약대상의 속성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계약의 형태를 선택하는데 준거의 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대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자산특수성이 커서 사후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opportunism)이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자산특수성에 따른 계약당사자간의 갈등을 분석할 수도 있다. 가령 농민이 가지는 자산특수성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대금지불을 지연시키거나, 가격을 깎는 유통업체의 행태 등이 설명될 수 있다. 넷째 고객이론을 원용하여 계약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계약 이행상의 문제와 사후적인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3.2.2. 농협 및 기타 농민조직

농협과 농민조직은 TCE에서 말하는 제도적 장치의 일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첫째, TCE는 이와 같은 농협과 농민조직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ook(1995)은 TCE 및 고객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조합의 결성동기를 설명하고 발전단계를 구분한 바 있다. 협동조합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이 실패하였을 경우 있을 수 있는 구매자들의 기회주의 속성과 준지대 갈취(hold-up)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이다. 무임승차, 도덕적 해이, 소유권 등의 개념도 생산자 조직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둘째 소유권, TCE, 고객이론 등을 이용하여 무임승차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자조직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2.3. 수직통합

우리나라에서도 양계 및 양돈산업을 중심으로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으로 대표되는 축산업의 구조변화가 뚜렷하다.<sup>11</sup> 수직조정(vertical coordination)이라 함은 유통상의 수직단계가 통합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후방 활동에 대한 소유, 관리, 교환의 합병을 의미한다. 이중 수직통합은 기업이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하며 생산 및 유통단계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수직조정단계이고, 계약생산도 느슨한 형태의 수직통합이라 할 수 있다.

수직통합을 연구함에 있어 TCE는 첫째 수직통합의 동기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illiamson(1985)은 수직통합을 자산특수성, 불확실성, 거래빈도 등의 거래 속성에 따라 거래비용을 최소화(economize)하기 위해 선택된 규제 장치라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가설이 부합되는지 검증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수직통합의 형태와 동기를 설명하는데 자산특수성<sup>12</sup>과 같은

<sup>11</sup>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직계열화에 의한 생산비 증은 양돈의 경우 대략 30%, 양계 7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sup>12</sup> 예를 들면 생산자가 더 나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모돈에 투자한 경우 품질 향상에 따른 프리미엄은 도축업자가 취할 수

거래 속성 및 품질 등급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과 같은 TCE의 이론적 틀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 3.2.4. 농산물등급제도 및 표준화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의 등급제 및 표준화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다. 농산물의 품질과 등급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등급화와 표준화는 소비자들의 정보 및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TCE를 이용하여 등급제 및 표준화를 설명하면 더욱 유익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3.2.5. 농업관련산업론

TCE는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일컫는 농업관련산업론(Agribusiness)에서도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거래비용은 수직적, 수평적 통합, 합병 등을 통한 기업의 범위(boundaries)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을 블랙박스가 아닌 계약의 집합체(nexus of contracts)로 인식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거래를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장소적 특수성과 같은 자산특수성은 기업의 입지론 설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sup>13</sup>

있는 준지대(quasi-rent)가 되는데 이 경우 양돈농가는 투자유인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수직계열화는 모든 향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계사, 우사 등 축사, 사료급여시설, 가공시설 등은 타 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어 자산특수성을 지닌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농업경제학에서 TCE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TCE의 이론적 구조를 살펴보고 TCE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예시해 보았다. 위에서 열거하지 않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TCE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기술전파, 위험관리 및 시장정보, 농업이익집단, 농자재 산업 등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농업경제를 연구하는 데 조직과 제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업경제학에 TCE가 보완적으로 가세됨으로써 당면하는 농업문제와 제반 현상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여건변화에 따른 예측에서도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신고전학과 이론 또는 분석틀만 가지고 당면 현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TCE가 농업경제학에 도입,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학문간 협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TCE 자체가 조직 또는 제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농업경제학 분야에서 TCE 적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 정치학자, 심리학자, 법학자 등과의 폭넓은 학문적 교류가 필요하다.

물론 TCE를 농업경제학에 도입하는데

<sup>13</sup> 이밖에도 거래비용경제학은 북한에서와 같이 체제전환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Boener and Macher(2001)가 지적한 바와 같이 TCE에서 이론적인 면과 실증적인 면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TCE에서 핵심개념인 기회주의 속성, 자산특수성, 불확실성 등에 관한 이론적인 틀은 확고한 편이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계측, 추정하는 데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짜내어 계속 극복해야 될 과제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허길행 등. 2002. 『농산물공동출하 유형별 효과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보고 R4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row, Kenneth. 1969.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Issues Pertinent to the Choice of Market Versus Nonmarket Allocation.” i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Public Expenditure: The PPB System*. Vol. 1,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59-73.

Boerner, Christopher S., and Jeffery T. Macher. 2001.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 Assessment of Empirical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Unpublished Working Paper, Georgia University.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pp. 386-405.

\_\_\_\_\_.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3, pp. 1-44.

Cook, M. L., 1995. “The Future of U.S. Agricultural Cooperatives: A Neo-Institution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7, pp. 1153-1159.

De Alessi, L., 1983. “Property Rights, Transaction Costs, and X-Efficiency: An Essay in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3, pp. 64-81.

Dietrich, Micheal. 1994.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d Beyond*.

Eggertsson, Thráinn. 1994.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Furubotn Erick G. and Rudolf Richter. 2000. *Institutions and Economic Theo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oodhue, R. E., 2000. “Broiler Production Contracts as a Multi-Agent Problem: Common Risk Incentives and Heterogeneit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82, pp. 606-622.

Johnson, C. S. and K. A. Foster, 1994. “Risk Preferences and Contracting in the U.S. Hog Industry.” *Journal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Vol. 26, pp. 393-405.

Kherallah Myléne and Johann Kirsten. 2001.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pplications for Agricultural Policy Resaerch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Knudsen, Christian. 1986. *Normal Science as a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From a Microeconomic to a Neo-*

-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perty Rights, Organizational Forms and Economic Behavior, The Swedish Collegium for Advanced Study in the Social Sciences.
- Lakatos, Imre., 1970.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 in Lakatos and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hews, R. C. O., 1986. "The Economics of Institutions and the Sources of Growth." *Economic Journal*. Vol. 96, pp. 903-910.
- Masten, S. E., Meehan, J.W. and Snyder, E.A., 1991. "The Cost of Organization."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7, pp. 1-25.
- Nabi, M. K. and J. B. Nugent. 1989.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Its Applicability to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17(9), pp. 1333-1347.
- Nicholson, Walter, 1995. *Microeconomic Theory*. The Dryden Press.
- North, Douglass G., 1998.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son, M. and S. Kähkönen, 2000. *A Not-so-dismal Science: A Broader View of Economics and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Saleh Jahangir. 2004.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and Investment*.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311.
- Sykuta Micheal and Micheal L. Cook. 2001. *A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pproach to Contracts and Cooperatives*, Contracting and Organizations Research Initiativ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Working Paper No. 01-04.
- Sykuta M. and Joe Parcell. 2002. *Contract Structure and Design in Identity Preserved Soybean Production, Contracting and Organizations Research Initiativ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Working Paper No. 02-01.
- Williamson, Olive E., 1985. *The Economics of Institutions of Capitalism*. The Free Press.
- \_\_\_\_\_, 1989. "Transaction Cost Economics" in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Schmalensee.
- \_\_\_\_\_, 2000.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aking Stock, Looking Ahea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VIII, pp. 593-613.

■ 원고접수일 : 2004년 7월 20일  
 원고심사일 : 2004년 7월 26일  
 심사완료일 : 2004년 8월 5일